



## ‘KOLAS 추가 인정’ 획득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8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 부터 방염성능시험 등 6개 시험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인정받았다. 이번에 추가로 인정받은 시험항목을 살펴보면 ‘스프링클러헤드의 열감지시험, 직물 및 관련물질의 방염성능시험, 건축자재 등의 방염성능시험과 난연성시험, 창호 및 내외장 벽체의 단열성능시험과 결로방지성능시험’ 등이다. 아울러 인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KS, JIS 및 ISO 규격 등 국내외의 다양한 시험기준으로 해당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5년 국내에서 18번째로 공인 시험기관이 된 우리 연구소는 그 동안 2번에 걸친 추가 인정확대로 건물구조체에 대한 내화시험 등 화재 관련시험과 소음측정시험 등 환경분야의 시험을 포함하여 현재 총 24개 시험항목을 인정받고 있다.

## 농림부 국책연구과제 선정

- 집성재 목구조의 설계기법 및  
내화성능평가모델 개발

방재시험연구소는 지난 10월 11일, 농림부 국책연구과제인 “집성재 목구조의 설계기법 및 내화성능평가모델개발” 프로젝트에 충남대학교와 함께 연구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에서 시험연구소가 수행할 연구분야는 “집성재 목구조의 내화성능 평가연구” 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부족한 목재자원을 감안하여 소경목재(여러개로 조각나 사용이 불가능한 목재)를 대단면목재(소경목재를 접합 또는 재구성하여 사용가능하게 만든 목재)로 가공한 집성재를 건축물 구조에 적용시 활용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구조강도 등 모든 물성의 영향을 평가하

여 그 “구조설계 프로그램 및 내화(耐火)성능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다.

특히, 이 농림부 국책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목구조재인 집성재의 내화성능개발기술을 축적함으로써 신기술에 의한 고부가가치 업무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과학기술부 국책연구과제 수행결과,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아

과학기술부는 ‘98인위재해 방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우리 연구소에서 수행했던 「UV(자외선)/IR(적외선)화재감지장치 개발」국책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평가결과를 연구소로 알려왔다.

이번 국책연구 프로젝트 수행결과에 대해, 연구소는 평가점수 ‘99.44점’에 평가등급 ‘우수’ 판정을 받았으며, ‘실용화 목적에 부합된 연구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는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화재감지 성능이 뛰어난 UV/IR 화재감지장치가 실용화될 경우, 조기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관련 업계의 비용절감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경구 소장,

### ‘지중(地中)건축에 관한 세미나」주제 발표

연구소의 이경구 소장은 지난 10월 20일, 대한건축학회의 주최로 동 학회 회관에서 열린 「지중(地中)건축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지중공간의 재해현상과 방재대책’이란 내용으로 세미나 주제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도시의 밀집화 및 건축물의 고층화 현상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대두되어 지하공간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하건축은 지상건축에서 보다 방재수준을 2중 또는 3중으로 높여서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하건축에서의 총체적인 방재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지하건축물은 재해현상이 일반 건축물과 현저히 달라서 재해시 대형피해가 수반되므로 설계당시부터 방재(防災)가 최우선이 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경구 소장을 비롯하여 성균관대학교 권택진 교수 등 학계 4명, 산업계에서 삼우설계의 이강주 박사 등 2명 및 건설기술연구원 이승언 박사 등 산·학·연의 건축 및 방재 전문가들이 분야별 세미나 주제를 발표하여 각계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 ISO/TC 92(화재안전) 간사기관 지정서 전달받아

연구소는 지난 11월 23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 화재안전분야 기술위원회(ISO/TC 92) 국내 간사기관 지정서를 전달받았다.

연구소는 이미 지난 98년 6월부터 국내 간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ISO에서 기술표준원으로 통보된 ‘화재안전(FIRE SAFETY)’에 관한 국제규격의 제·개정안을 검토하고 국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규격안에 대한 기술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 지정서 전달은 해당 기술 및 분과위원회(TC/SC)별로 지정된 57개 국내 간사기관을 초청, 개최한 ‘ISO 국내 간사기관 활성화 세미나’에서 향후 국내 간사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류은열 부장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지정서를 전달받았다..

##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과 업무협력협약 맺어

연구소는 지난 11월 18일,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과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하였다.

양기관은 이번 업무협력협약을 계기로 전자재기술분야의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기술 지원 등을 통하여 상호 업무협력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국내 전자재의 품질향상은 물론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연구소와 협약관계를 맺은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은 이미 지난 95년에 우리 연구소와 같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공인시험기관(KOLAS)로 지정받아 국내·외적으로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등 국내 전자재 분야에 우수한 시험기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 ‘FILK 인증심의회’ 회의 개최

연구소는 지난 12월 14일, (주)한그린텍 및 한국쓰리엠(주)의 내화충전구조 각 4 Systems에 대한 FILK인증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인증심의회는 종전과 달리 인증 심의위원을 외부위원으로 확대위촉한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한 심의회로서 우리 FILK인증의 객관성, 신뢰성 및 전문성 등을 한층 더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인증심의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며, 내부 심의위원은 연구소 부·팀장으로 구성된다. 이번 심의회에 참석한 건축분야 심의위원으로는 연세대 건축공학과 홍갑표 교수, 단국대 건축공학과 김희서 교수 및 LG화재해상보험(주) 위험관리실 구자철 부장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이날 장시간에 걸쳐 세밀히 검토된 위원들의 심의 결과로는 상기 업체의 내화충전구조 각 4 Systems에 대한 신규인증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호주 대학생 3명 현장실습

연구소는 2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호주 New South Wales 대학교 재학생에게 방재(防災) 관련 업무 및 시설 등에 관한 현장실습교육(OJT)을 실시하였다.

이번 실습교육에 참가한 호주 N.S.W 대학생은 한인교포 김동녕 학생을 비롯하여 홍콩계 학생인 알프레드와 브루스이다. 이 학생들은 산업체 근무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겨울방학을 이용, 호주 N.S.W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서울산업대학교의 소개로 우리 연구소에서 실습교육을 받게 되었다. 실습생들은 시험·연구 및 지원 부서에 배치되어 시험·연구용역업무와 국제규격(ISO) 등 해외기준 조사업무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연구소의 연구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제3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시상식 개최

협회는 1999년 11월 25일 협회사옥 회의실에서 협회 임직원과 김수배 한국경제신문사 사장비서실장, 서울공덕초등학교 합창단 및 수상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와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제3회 불조심어린이마당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160개 학교에 6,408명이 참가하여 지난해보다 7개교 400여명이 증가하였다. 참가 신청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약 40일간의 자체학습기간을 거쳐, 우리협회 직원이 직접

방문, 간단한 숙지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다음 세대의 주인이 될 어린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꼭 실천해야 할 안전의식을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뜻을 두고 있는 불조심어린이마당 행사에서는 교육부장관상인 최우수상 1개교(상금 100만원)를 비롯하여 우수상 2개교(상금 각 50만원), 으뜸상 7개교(상금 각 30만원) 등 총 10개 학교가 수상학교로 선정되었다. 이번에는 예년과 다르게 참가학교가 10개 이상인 각 시·도에서 으뜸인 1개교씩을 선발하여 각 시·도가 고루 수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제26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 개최

협회는 제26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을 지난 99년 11월 18일 서울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김홍래 행정자치부 차관, 손해보험업계 사장단을 비롯한 내외 귀빈 및 소방공무원과 수상자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였다.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을 통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생활을 위해 헌신한 우수소방관을 표창함으로써 소방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복지사회 건설을 이룩하기 위해 한국화재보험협회가 74년에 제정,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이 행사는 올해까지 모두 306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17명(대상 1명, 본상 16명)의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대상 300만원, 본상 200만원)과 함께 1계급 특진의 영예가 주어졌다. 한편, 이번에 처음으로 특별상 제도를 신설하여 국제구조활동을 통해 국위 선양에 앞장선 소방관에게 상패와 함께 부상 50만원을 시상하였다. 